

제 4 교시 LUKAS Real Final (윤리와 사상)

최종 실력 점검입니다.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Good Luck :) by LUKAS

1. 다음 일기를 보고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오늘 나는 윤리 사상이 개인에게 일관된 도덕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윤리와 사상 시간에 "최고의 선(善)은 행복이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한다.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으며,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등의 지성적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용기, 절제 등의 품성적 덕은 옳은 행위를 습관화함으로써 생긴다. 옳은 행위란 과도함과 부족함의 가운데인 중용(中庸)의 상태이며, 지성적 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용의 상태인지 알려 준다."라는 어느 사상가의 주장을 접하고 그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내 삶의 지침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 아리스토텔레스

- ① 현실 세계로부터 독립된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인간
⇒ 플라톤
- ②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정치적 동물임을 자각하는 인간
- ③ 지적인 덕은 올바른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됨을 아는 인간
⇒ 습관화를 통해 형성되는 덕은 품성적 덕
- ④ 이성에 의해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용의 덕임을 아는 인간
⇒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것이 덕 형성의 방법이 아닌
- ⑤ 타고난 본성으로서의 덕을 함양하는 인간
⇒ 덕은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2. 갑, 을의 사상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인(仁)을 해치는 자를 흉폭하다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인하다고 한다. 흉폭하고 잔인한 인간은 일부(一夫)라고 이른다. 인부인 죽(紂)을 죽였다는 믿을 들었어도 입금을 사해해 다는 믿을 들지 못했다. ⇒ 맹자(역성혁명 사상)

을 : 최고 권력자가 된 자가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한 신탁(信託)에 반해서 행동하는가의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나는 인민이 재판관이라고 답변하겠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신탁에 따라 잘 처신하고 있는지는 대리를 위임한 사람, 곧 위임했기 때문에 그가 신탁에 비해 행동할 때 그를 해임할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판단하겠는가? ⇒ 로크(자연권 사상)

- ① 갑은 누구나 향산이 없어도 향심을 가지는 것이 도덕 공동체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았다. ⇒ 백성운 무학사 무학사
- ② 갑은 법치를 확립하여 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 유학은 법치를 강조하지 않음. 맹자는 양도장지
- ③ 을은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자신의 자연권 전부를 국가에 양도한다고 보았다. ⇒ 로크의 사회 계약론 인부양도. 정부 양도론 후스
- ④ 을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명시적 동의가 아닌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명시적, 암묵적 둘 다 가능
- ⑤ 갑과 을은 올바르게 양도 통치자에게는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밑줄 친 질문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채찍이나 재갈이 없으면 왕의 수레를 잘 몰았던 사람도 말을 복종시킬 수 없다. 자와 먹줄이 없으면 전설적인 장인도 네모와 동그라미를 제대로 그릴 수 없다. 위엄 있는 권세와 엄정한 사법이 없으면 비록 요순이라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뛰어난 군주는 공에 따라 상을 내리고 죄에 따라 형벌을 가한다.

⇒ 한비자(법가)

(나) 군주가 인의(仁義)를 찬미하면 크게는 나라가 망하고 군주가 죽으며 작게는 영토가 줄어들고 군주의 위세가 낮아진다. 어째서 그러한가?

- ① 인의는 사회가 혼란해져야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 ② 인의는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인의는 상벌의 엄정한 시행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 ④ 인의는 법과 술수에 의존하는 정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⑤ 인의는 본성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4.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타고난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것은 자연적 운이나 사회적 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 롤스

을 : 당신은 개인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능력과 같은 자연적 자산은 마땅히 그에게 속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갖게 된 모든 소유물도 당연히 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 노직(스미스)

갑 : 제 생각에 당신은 ㉠ _____.

- (㉠)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정한 정의의 원리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자유방임주의적 견해에서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강조한다.
- (㉡) 천부적 재능은 우연적인 것으로 사회적 자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 (㉢) 재분배 정책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음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 (㉣)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이 인간을 가장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 자유주의적 견해 역시 동등한 기회 보장을 강조한다.
- (㉤)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모두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 롤스 역시 양자 배려보다 기본적 자유 보장이 우선된다.
- (㉥)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의 가치를 따라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마르크스의 분배 강령이다.
- (㉦) 국가에 의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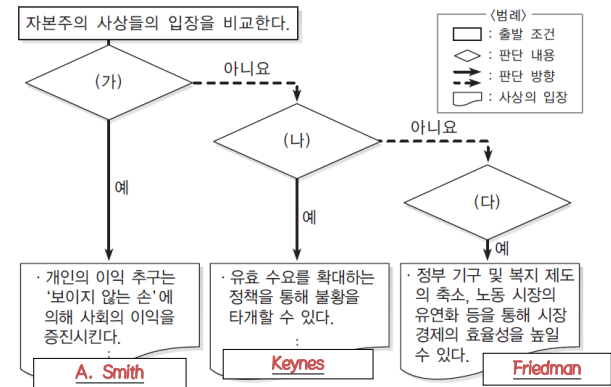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5.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밑줄 친 '성인'에 대해 내릴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지극한 덕이 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만물과 섞여 있어서 구별이 없었다. 그러나 어찌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었겠는가? 다 같이 얹어 없어서 덕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다 같이 옥실이 없으니 이를 인하여 소박하다고 한다. 소박함으로 인해 백성들의 본성이 보전되었다. => 도기
 (나) 옛날의 성인(聖人)은 예의를 밝혀 사람들을 교화하고 올바른 법도를 만들어 사람들을 다스렸으며 형벌을 무겁게 해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모두 잘 다스려지도록 하고 선으로 모아지게 하였다. => 유학

- ① 인간의 본성을 해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 ② 무위(無爲)의 실현에 필요한 사회 규범을 제정한 참된 사람이다.
=> 기득 사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기에서는 인기가 많은 사회 규범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다.
- ③ 인간이 타고난 사단(四端)의 확충을 가로막는 규범의 제정자이다.
=> 도기 사상은 타고난 사단의 확충을 강조하지 않는다.
- ④ 인간의 성정(性情)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문명의 창시자이다.
=> 도기 사상은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강조하지 않는다.
- ⑤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계도한 지인(至人)이다.
=> 도기 인가에서 유희의 성인은 지인으로 평가할 수 없다.

6. 그림의 (가), (나), (다)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가) : 개인의 판단보다 정부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가?
=> 정부의 판단과 개인을 신뢰하는 것은 케인즈의 수직 자본주의적 견해이다.
- (ㄴ). (나) : 재정 지출의 확대는 불황의 극복에 도움을 주는가?
- (ㄷ). (나) : 경제적 불평등의 최소화가 경제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가?
=> 불평등의 최소화가 궁극적 목표인 것은 사회주의적 사상이나, 이따리 케인즈가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고 일정 교율을 기하한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 (ㄹ). (다) : 실업과 불황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 (ㅁ). (가) : 농업, 수공업, 소매업 등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만을 인정하는가? => 자본주의 사상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
- (ㅂ). (나) : 결과적 평등에 따른 분배의 형평성을 중시하는가?
=> 결과적 평등을 기하하는 것은 Marxism이다.
- (ㅅ). (다) :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7. 가상 대화를 하는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두 사상가 모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비나 선악을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자기의 본래 마음을 직관하면 단박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③ 참선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 ④ 이론과 지식의 축적에 열매이지 말아야 한다.
=> 양명학의 초양지, 선종 불교에서의 보살망기
- ⑤ 속세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지(知)와 행(行)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니, 마치 눈만 있고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만 있고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선후(先後)를 논하지않고 기가 먼저이고 경중(輕重)을 논하지않고 행이 더 중요하다. => 주자(성리학)
- 치지(致知)와 역행(力行)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한쪽에 치우치면 곧 다른 한쪽에 병폐가 생긴다. 선후를 논하자면 치지가 먼저이고 경중을 논하자면 역행이 더 중요하다.

- (ㄱ). 치지란 타고난 양지(良知)를 극진히 발휘하는 것인가?
=> 초양지(양명학)
- (ㄴ). 지와 행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인가?
=> 기해방기(성리학)
- (ㄷ).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 기해방기(양명학)
- (ㄹ). 격물(格物)이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인가?
=> 시무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곧 격물(성리학)
- (ㅁ). 만물에는 태극이 품부되어 있으므로 인간과 사물은 동일한 이치를 지니고 있는가?
=> 주동이 리극도성, 인가과 시무 모두 리(理)를 기니(성리학)
- (ㅂ). 사덕(四德)은 사단(四端)의 존재를 알게 해 주는 단서인가?
=> 맹자의 성선설, 다시서 계승, 성리학의 양명학의 공물 논리
- (ㅅ). 천리를 보존하고 인심을 제거하는 수양이 필요한가?
=> 주장된 개인은 성리학의 양명학의 공물 논리, 그러나 개개의 대상은 인성이 아닌 인욕
- (ㅇ).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사사물물(事事物物)에서 이루는 것이 격물치지의 뜻인가?
=> 양명학에서의 초양지, 성주리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9.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우리의 삶은 의지에 의해 나타나고 세계도 의지의 표상일 뿐이다. 의지가 욕망하는 것은 끝이 없고, 의지의 목적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의지를 부정하고 철저히 금욕적으로 살아 갈 때, 우리는 고뇌에서 해방할 수 있다. => 쇼펜하우어(생각하)
 을: 나에게 진리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타당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즉혜성이 길된다. => 키에르케고르

- (㉠). 갑은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절제 있는 삶을 중시했다. => 생각하의 금욕주의, 철저한 욕구 충족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 을은 대중의 일원이 아니라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살 것을 강조했다.
- (㉢). 갑은 삶을 합리적 방법으로, 을은 비합리적 방법으로 탐구할 것을 주장했다. => 현대 서양 철학은 반이성, 반합리주의가 기본적인 공통적 시조
- (㉣). 갑, 을은 이성적·관념적 철학에 반대하고 현실적 삶에 주목했다.
- (㉤). 을은 윤리적 삶을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단계로 보았다. => 키에르케고르의 시종의 3단계에 따라서 궁극적인 단계는 3단계인 종교적 단계 이후임
- (㉥). 갑, 을은 신의 은총 없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 쇼펜하우어는 기독교적 인격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아닌
- (㉦). 을은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강조하였다. => 반이성주의임, 또한 신(기독교)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강조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사상에 가깝음
- (㉧). 갑은 완전한 자기 소멸과 의지의 부정, 참된 무의지, 오직 이것만이 의지의 갈망을 영원히 잠재울 수 있다고 보았다.

10. 갑은 근대 사상가, 을과 병은 중세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갑, 을은 긍정, 병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이다. 우리는 사물들이 생겨나는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통찰해야 한다. => 스피노자
 을: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논증될 수 없다.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우리는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 => 아퀴나스
 병: 보편자는 실제하지 않으며 비슷한 개별자들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불필요한 기성이나 존재자를 넘겨줄 수 없다. => 오컴

- ① 신에 대한 사랑을 중시해야 하는가? => 세명 다 긍정
- ② 신은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 인격신인가? => 갑은 부정
- ③ 신은 유일한 실체이고 동시에 자연인가? => 갑만 긍정
- ④ 신은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가? => 스피노자는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에 대한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음. 아퀴나스 역시 인격신에 대한 이성적 증명 가능성으로 이성을 통한 신의 인식이 가능함. 오컴은 이종기성론에 입각하여 인격신에 대한 인식이나 증명을 거부함
- ⑤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인간의 구원이 가능한가? => 갑은 부정

11. 갑, 을은 근대 한국 사상가들이다. 이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의 도(道)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조화(造化)가 나오는 것이다.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분별이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이,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다. => 동학
 을: 외물에는 사목(事目)이 많아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으나 양물(洋物)의 해가 가장 심하다. ... (중략) ... 난세를 구하는 것이 이단을 물리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며, 이단을 물리칠 이 경학(正學)을 밝히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으니, 정확을 밝히는 것은 다만 한 마음 가운데에 천리와 인욕을 구별하는 데 있을 뿐이다. => 위정척사

- ①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한 규범과 질서를 지키고자 하였다. => 갑은 부정
- ②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바탕으로 발전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동도서기론
- ③ 유·불·도 삼교를 재해석하여 시대에 맞는 정신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 목은 부정
- ④ 이사병행(理事並行)을 주장하며 이(理)와 사(事)를 함께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 양불교
- ⑤ 서양 문물에 대해 배척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12. 갑, 을, 병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국가는 민간의 민의에 대한 투쟁 상대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 수립한 것이다. => 호스
 을: 국가는 가족과 시민 사회의 원리가 결합된 최고의 인공이다. 개인은 국가의 일원일 때만 참된 존재 의미를 가진다. => 헤겔
 병: 국가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를 계층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롭게 된다. => 플라톤

- (㉠). 국가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인가? => 국가는 계약에 의해 형성된 도구적 실존은 호스
- (㉡). 국가는 종음의 본질을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하는 조직인가? => 플라톤의 참이 통치 국가
- (㉢). 국가는 인간의 이타적인 본성을 억압하는 기구에 불과한가? =>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세명 다 국가는 필요한 것으로 봄
- (㉣). 국가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궁극적으로 소멸되어야 하는가? => 국가소멸론을 강조하는 사상은 미르코스. 세 명 다 국가는 필요한 것이
- (㉤). 국가는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가 함께 실현되는 최고의 도덕 공동체인가? => 헤겔의 국가관
- (㉥). 이상적 국가란 철학과 정치권력의 결합이 이루어진 국가인가?
- (㉦). 국가가 제한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면 국민이 계약을 철회하고 저항할 수 있는가? => 로크의 저항권 사상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13~14] 다음은 조선 시대 유학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분별이 있는 것은 성(性)에 본연 지성과 기질지성의 분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이(理)를 주(主)로 삼는 것이고, 기질은 기(氣)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 이행
 을 :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습니다.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격하듯 기질이 사단을 격하합니다. 정은 하나이며, 칠정 이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이

13. 갑, 을의 사상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정으로서의 사단과 칠정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다.
=> 사단이든 기질이든 리와 기는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EBS 스텔 45P. 기로플러스)
- ② 갑은 사단을 선악이 함께 존재하는 감정으로 보았다.
=> 4다운 수성무위의 감정
- ③ 을은 사단의 실천을 통해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 덕을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정약오
- ④ 갑과 을은 모두 이는 무형 무위(無形無爲)이고 기는 유형 유위(有形有爲)인 것으로 보았다.
=> 이행 : 리는 무형유위, 기는 유형유위
이이 : 리는 무형무위, 기는 유형유위
- ⑤ 을은 갑과 달리 사단 이외의 또 다른 순성한 정은 없다고 보았다.
=> 사단 이외에 순성한 것이 없는 것은 성리학의 공통된 논리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경”에는 ‘백성이 몇몇한 것을 잡고 있으니,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공자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도를 아는구나!” 라고 말했다. 몇몇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性)을 말하는 것이고, 덕을 좋아하는 것은 기호(嗜好)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양자의 기호(정약오)

- ① 덕은 실천[行事]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기피하고 있음
- ② 성(性)을 교화해야 사단이 생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4다운 선천적인 것. 형성되는 것이 아닌
- ③ 하늘이 부여한 자유 의지가 있으니 잘못을 타고난 기질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의지가 나약한 데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기피하고 있음
- ④ 마음의 본체인 성이 곧 천리[性卽理]임을 부정하고 있다.
=> 성즉리를 부정하지 있음. 성리학의 타락계기 성즉리인
- ⑤ 인의예지는 마음에 부여된 천리가 아니라 사단의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너를 모욕하는 것은 너에게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너를 모욕하고 있다고 여기는 네 생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시계로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우명론적 수동주의(스토아 사상)
 을 : 사려 깊고 아름답고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쾌락적인 삶을 살 수 없다. 또한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사려 깊고 아름답고 올바르게 살 수 없다. 우리가 강조하는 쾌락을 통해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만이 없는 상태이다. => 에피쿠로스

- (ㄱ) 갑은 이성이나 자연에 일치하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스토아 사상은 자연에 일치하는 감정을 존재한다고 봄. 모든 감정을 전부 제거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시계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정념을 제거함을 강조
- (ㄴ) 을은 사회적 쾌락을 위해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강조한다.
=>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우동주의적 성향
- (ㄷ) 갑, 을은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의 충족을 허용한다.
- (ㄴ) 을은 평정심에 다다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성의 역할을 부정한다.
=> 극한된 쾌락을 강조하는 것은 플라톤의 정념의 덕을 개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띠커서 이성의 역할이 인정되고 또한 요구 됨
- (ㄷ) 갑과 달리 을은 세계 시민주의적 평등 사상을 표방한다.
=> 세계 시민주의적 특성은 스토아의 사상

[16~17] (가)의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며, (나)는 이들의 입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갑 :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며 주관적으로는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즉 나의 모든 경향성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중립뿐이다. => 칸트
 을 : 고통이나 쾌락을 제외하면 인간 행위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이해를 떠나서 인간의 최대 행복은 인간 행위의 유일한 이해라고 생각하며 보편적으로 소망 가능한 목적이다. => 베틀

(나)

16.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 ① A : 인간에게 보편화 가능한 법칙이 존재한다.
=> 칸트에게 보편화 법칙은 것이명령, 베틀에게 보편화 법칙은 공리의 원칙. ∴ C
 - ② A : 행복은 항상 도덕 법칙과 상충하는 것이다.
=> 칸트에게 행복은 도덕법칙과 의무에 따르는 실패. 띠커서 양자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한 관계인.
 - ③ B : 유용성은 유일하게 정당한 행위 판단의 근거이다.
 - ④ B : 인간의 행복과 도덕은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 베틀은 공리의 원칙이라는 도덕에 따르면 행복과 양립 가능함
 - ⑤ C : 인간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행위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 A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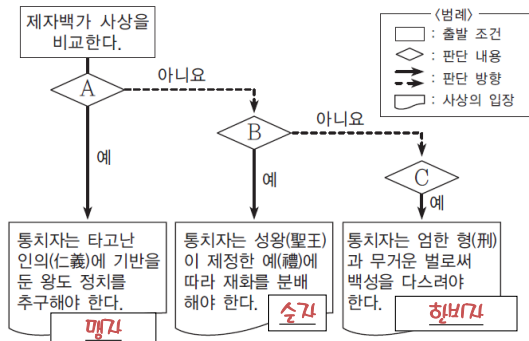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17. 갑의 입장에 대해 다음의 병, 정 사상가가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병 : 남녀의 목소리를 서로 다르다.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배려 윤리가 보여주는 진실, 인간관계와 책임의 관련성 등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기타
 정 :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원칙을 아는 것보다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주목해야 한다. => 덕윤리

- ㄱ. 병 : 공감이나 동정심이 도덕의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하고 있다.
- ㄴ. 정 : 도덕적 선을 지향하는 성품과 습관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 ㄷ. 병, 정 : 연대성이나 관계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 ㄹ. 병, 정 :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관심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 병의 입장에만 해당 됨

18. 그림의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A :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단(四端)을 지니고 태어나는가? => 순자는 유학 사상가로는 한비자보다 선입장. 따라서 순자의 사상에서는 선천적인 사단은 주장하지 않음
- (ㄴ). B : 인성(人性)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偽]의 결과인가? => 순자의 화성기위, 한비자는 인간의 도덕적 교화 기능성에 대해 일찍이 불신
- (ㄷ). B : 예는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인위적인 규범인가? => 순자의 예치(복제) 사상, 순자의 분배적 정의는 지도 분배
- (ㄹ). C : 통치자는 빈곤한 백성에게 먹고살 재화를 베풀어야 하는가? => 맹자의 형식의 개념
- (ㄱ). A : 통치의 궁극적 목적은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인가? => 모든 유학 사상의 공통된 지향점
- (ㄴ). B : 백성은 도덕적 교화의 대상인가? => 유학에서는 백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지만 법가에서는 단순한 조종의 대상
- (ㄷ). C : 군주의 역할은 법치보다 덕치에 근거해야 하는가? => 법가는 강력한 형법에 근거한 법치를 주장

19.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운동은 소수의 운동이었거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압도적 다수의 이익을 위한 압도적 다수의 자주적 운동이다. 사회의 최하층인 프롤레타리아는 공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급의 일부 구조 전체를 폭파시키기 않고서는 일어나 수도 없고 허리를 펴 수도 없다. => 마르크스
 (나) 사회주의자는 자유 속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자유 없이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민주주의는 오직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다. => 민주 사회주의

- 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투쟁으로 자본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계급 없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보았다. => 마르크스의 폭력 혁명 사상
- ②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근본 원인이 생산 수단의 사유화에 있다고 보고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였다. => 마르크스의 생산 수단 공유제, 또한 민주사회주의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모두 자본주의적 사유제에 대한 무제한적 공격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가)에 비해 (나)가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입장이다.
- ④ 경제의 민주화보다 경제의 자유화를 강조하였다. => 경제의 자유화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상
- ⑤ 프롤레타리아 독재 후 계급 없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 계급 소멸과 국가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스

6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20. 갑, 을, 병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옳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참된 쾌락은 **모든 고통이 없고 마음의 복이인 모든 신변**을 의미한다. => **에피쿠로스**
 을 :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배부를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 => **밀**
 병 :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고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하려고 행동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난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 **벤담**

- (㉠). 갑, 을 :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중시해야 한다.
=>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 (㉡). 갑, 병 :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 **쾌락에서의 검제와 검소를 강조하는 것은 에피쿠로스**
- (㉢). 을, 병 :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보다 많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 **에피쿠로스는 다수의 행복에 관심이 없음. 유클리드의**
- (㉣). 갑, 을, 병 : 행복한 삶과 도덕적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 **세명 다 쾌락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이들에게는 행복한 삶이며 이것이 곧 도덕적인 삶**
- (㉤). 을, 병 : 행복을 위해 공적인 삶을 회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공적인 삶을 회피하는 유클리드는 에피쿠로스**
- (㉥). 을, 병 : 공익과 쾌락의 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 **다수의 행복인 공익과 질적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상은 밀**
- (㉦). 갑, 을 : 공리성을 도덕적 행위의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 **에피쿠로스는 공리성을 강조하지 않음**
- (㉧). 갑, 을, 병 : 쾌락을 유일한 최고의 선, 고통을 악으로 본다.
=> **쾌락이 선, 고통을 악으로 보는 것이 쾌락주의. 세명 다 쾌락주의적 사상**

정답

- 1. ②
- 2. ⑤
- 3. ③
- 4. ①
- 5. ①
- 6. ②
- 7. ④
- 8. ②
- 9. ②
- 10. ④
- 11. ⑤
- 12. ③
- 13. ①
- 14. ⑤
- 15. ③
- 16. ③
- 17. ④
- 18. ①
- 19. ③
- 20. ②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영평의 11월12일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공하십시오.
 믿음을 기쁨으로 기원합니다.
 LUKAS 드킵